

전남 특산품으로 '웰빙스낵' 만든다

22개 시·군 생산 배·참다래·무화과·유자 등 살림산업, 연내 양해각서 체결 ... 전국 판매도

배·참다래·무화과·유자 등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이 내년부터 '웰빙스낵'으로 만들어져 전국에 판매된다.

전남지역 농산물 임가공업체인 살림산업(주)(대표 김정매)은 지난달 전남도와 '웰빙스낵' 생산을 위한 원재료납품 등에 관해 협의하고 올해 안으로 전남도를 비롯해 각 시·군, 농협 등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최근 1~2년 전부터 스낵 생산계획을 추진해온 살림산업은 기업부설연구

소, 대학연구소 등과 공동연구 끝에 19일 현재 전체 생산예정인 스낵 중 80%에 달하는 제품을 시험개발해 낸 상태다.

기존 스낵이 소량의 원재료에다 갖가지 화학성분을 가미해 만든 인스턴트 제품인 반면, 웰빙스낵은 전남지역 농산물 고유의 맛과 색, 영양을 자연 그대로 함유해 어린이들은 물론 성인들도 즐겨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웰빙스낵은 FD(Freeze Drying·동결건조)공법을 운용할 수 있는 최첨

단 시설을 갖춘 이 회사의 나주시 왕곡리 공장에서 내년부터 양산될 예정이다. FD공법은 원재료를 빙점 이하의 온도로 동결시켜 얼음상태에서 승화과정을 거쳐 수분을 제거하는 공법을 말한다.

김정매 대표는 "지난 6월 MOU를 체결한 삼양식품의 판매망과 살림산업이 개척해놓은 농협하나로마트·이마트·편의점 매장 등을 활용하면 판로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면서 "이 같은 판매망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경우 웰빙스낵이 연간 6천억원에 달하는 국내 스낵시장에 새로운 장르로 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웰빙스낵은 전남지역 각 시·군에서 생산되는 대표작목을 원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루트 확보, 잉여농산물 소비, 비상품과 활용 등에 도움을 줘 농가소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앞서 살림산업은 FD공법을 통해 생산한 즉석미역국·즉석복어국 등을 국내 최대 식품메이커인 CJ 등에 납품한데 이어 '녹즙 시리즈'를 개발, 일반 출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신선초·케일·딸기 등 모든 농산물을 원재료로 만든 이 시리즈는 물만 부으면 생즙처럼 마실 수 있어 군남·학교 급식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편 1993년 설립된 살림산업은 34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92억원의 매출에 이어 웰빙스낵이 출시되는 내년에는 200억~300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영광産 '청보리 한우' 대박

광주신세계, 최상급 브랜드 연간 5억여원 매출

광주신세계 백화점이 판매중인 영광산 '청보리 한우'의 올해 상반기 판매액이 전년 동기대비 23% 이상 늘어나는 등 최고기 개방시대의 '효자상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일반한우 판매액이 14%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청보리 한우는 광주신세계 백화점 내 식품 브랜드 가운데에서도 명품을 조사한 결과 '5스타 한우' 중 으뜸이다. 이런 바람을 타고 청보리 한우가 전체 한우매출에서 차지하

는 매출구성비 또한 지난해 20%에서 올해 35%로 크게 증가했다.

청보리 한우는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청보리 사료나 청보리 발효사료를 먹여 키운 암소한우로, 풍부한 육즙과 부드러운 고기의 질감이 잘 어우러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05년부터 영광군이 육성하기 시작한 청보리 한우는 이듬해 7월 광주신세계와 독점 판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연간 5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광주점을 넘어 신세계백화점 본점, 강남점, 인천점, 죽전점 등 수도권에까지 판매망을 넓히는 등 전국구 스타로 자리매김할 태세다.

한편 광주신세계백화점의 상품과화연구소는 매 분기에 2회씩 목장과 도축장 등을 방문, 청보리 한우의 품질향상과 위생상태를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오고 있다.

김형철 광주신세계 바이어는 "광주신세계는 지역 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함께 우수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현지법인 유통기업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라며 "올해 추석 선물로 우수하고 안전한 청보리 한우를 강력히 추천한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제수용품, 재래시장이 30% 싸다

31개 품목 백화점과 가격 비교

추석 제수용품을 재래시장에서 사면 백화점에서 살 때보다 30% 가량 싼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주부클럽연합회는 추석을 앞두고 13~14일 서울 시내 백화점과 할인마트,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 100곳을 상대로 31개 추석 성수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쌀과 간 녹두 등 곡류, 햇배, 햇사과, 단감 등 과일, 숙주·시금치·파·도라지 등 야채류, 조기·복어 등 수산물, 한우 국거리·돼지고기(목심) 등 축산물, 송편·두부·청주 등 기타를 포함해 모두 31개 품목이다.

이들 품목의 가격을 지난해 추석 보름 전의 값과 비교할 때 12개 품목은 가격이 올랐고 16개는 내렸다. 단감의 가격이 65.8%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고 밀가루(51.6%), 햇사과(47.5%), 돼지고기 목심(28.4%), 햇배(22.1%), 수입산 조기(10.5%), 산자(5.1%), 복어포(3.7%), 일반미(3.5%), 동태포(1.8%), 수입 간 녹두(1.0%), 계란(0.5%) 등도 가격이 상승했다.

반면 파(-45.5%), 숙주(-21.0%), 시금치(-17.5%), 국산 꽃감(-15.8%), 수입 고사리(-12.2%), 한우 산적용 1등급(-12.1%), 한우 국거리 등급(-9.4%), 수입 꽃감(-8.8%) 등은 값이 내렸다.

/연합뉴스

IT·광산업 육성 광주시 17억 지원

광주 지역 광산업·IT산업 육성을 위해 17억원이 집중 지원된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의 '국제표준 기반 LED(발광다이오드) 제어 인터페이스 개발'사업이 지식경제부 지역 소프트웨어 공모사업에 선정돼 모두 10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국비 10억원과 시비 7억원 등 총 17억원을 광주지역 LED 업체와 IT업체에게 2년 동안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국제표준 기반 LED 제어 인터페이스 개발 사업은 LED 업체 마다 채택한 기술이 달라 상호 호환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光銀, 수출입銀에 4천만달러 지급해야"

대우 지급보증 관련 소송서 패소

광주은행이 수출입은행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4천만달러를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9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서울중앙법원은 지난 13일 광주은행 측에 4천97만달러를 수출입은행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지난 1996년 대우가 인도 현지 법인에 자동차 생산설비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수출입은행이 대우에 2억9000만달러를 빌려줬고 당시 광주은행 1억달러, 제일은행 2천만달러, 한미은행 6천만달러 등 국내 은행 연속회사를 유지하고 있는 광주가 4억4000만달러 흑자였고, 전남은 수입이 전년 대비 89.8% 증가하면서 13억2천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되면서 세 은행이 모두 지급보증서 발급을 거부, 수출입은행은 세 은행을 상대로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은행은 항소할 뜻을 비치고 있으나 대법원이 이미 지난해 8월 제일은행과 한미은행 후신인 한국시티은행을 상대로 한 같은 소송에서도 수출입은행의 손을 들어줘 최종 패소 가능성이 짙다.

광주은행 측은 "이번 소송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384억원을 이미 적립해두어 재정 측면에서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가을 남자 유희
광주신세계 7층 듀얼매장에서는 가을을 앞두고 다양한 남성용 악세서리를 선보여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카우버튼은 30만~43만9천원, 넥타이 핀은 38만9천원, 반지는 32만9천원 등. (광주신세계 제공)

지역 수출 호조

7월중 광주·전남 43억달러

고유가, 고원자재가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광주·전남지역의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9일 광주세관(세관장 이재홍)이 '2008년 7월 수출입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지역의 수출은 각각 8억3천400만달러, 34억8천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4.7%, 77.6% 증가했다.

광주의 경우 가전제품, 기계류, 정밀기기 등이 수출을 주도했고 전남은 석유제품과 선박 등이 호조세를 보였다. 무역수지는 지난 2003년 4월 이후 연속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광주가 4억400만달러 흑자였고, 전남은 수입이 전년 대비 89.8% 증가하면서 13억2천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연비 절감 트럭용 타이어 금호, 신제품 3종 출시



금호타이어(대표 오세철)는 최근 고유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트럭 운전자들을 위해 저연비 타이어인 KRS25과 내구성이 향상된 KRA11, KMD21 등 트럭용 신제품 타이어 3종을 8월 말부터 출시한다.

이번에 출시된 트럭용 신제품 3종에는 모두 ICOS(Integrated Component Optimization System)라는 금호타이어의 친환경 타이어 설계기술이 적용됐다. 이를 통해 타이어의 용도에 따라 형상과 구조·재료 등을 최적화함으로써 연비와 마일리지, 내구성, 내마모성 등 복합적인 성능을 극대화시켰다.

프리미엄 제품인 KRS25는 대형 카고트럭 전용 제품으로 연비를 대폭 향상시켰다. 또 중단거리 대형

카고트럭 전용용 제품인 KRA11은 내구성과 내마모성을 대폭 향상시킨 제품이며, 대형덤프 후륜용인 KMD21은 토목공사 현장과 같은 비포장 도로에서 흙이 타이어의 홈에 끼는 것을 방지하고 견인력을 증대시켰다.

한편 금호타이어는 오는 25일부터 전국의 대리점과 소매점에서 제품설명회를 갖고 9월3일부터 개인 화물차 주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대리점 모집

SM Fresh

일중한의원

062-676-1075